

『몽고습래회사』 제작 이유

몽고습래회사는 2권의 두루마리로 구성된 일본 가마쿠라 막부 후기의 그림으로, 여원연합군의 1, 2차 일본 원정 당시 전쟁 상황을 그린 그림이다.¹⁾ 이 두 차례의 전쟁은 일본에서 ‘가미카제’, 즉 신의 바람이라 불리는 태풍에 여원연합군이 휘말리게 되어, 자연재해 덕에 일본이 승리를 거둔 전쟁이다. 그러나 몽고습래회사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 태풍을 묘사하기보다, 용맹하게 싸우는 일본 무사를 묘사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아, 몽고습래회사 제작에 일본 무사의 용맹과 전투의 승리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몽고습래회사는 당시 일본군을 지휘하던 가마쿠라 막부의 고케닌이었던 다케자키 스에나가의 주문으로 제작된 것으로, 그의 활약상을 거대한 줄거리로 삼고 있다. 따라서 몽고습래회사의 제작 동기는 일본 무사들, 특히 스에나가 자신의 공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몽고습래회사의 그림에는 말을 타고 긴 화살을 쏘는 일본군과 열세에 놓인 여원연합군의 대치 상황이 드러나 있다. 말을 타고 멋있게 싸우는 한 명의 일본군과 화살이 빗발치는 곳에서 힘들게 버티는 여원연합군의 상황을 그린 것만 봐도, 당시 아시아의 상당 지역을 정복했던 원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일본군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심지어 원 군의 몇몇은 도망가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여기서 고려군은 최전방에서 일본군에 대적하며 활을 쏘고 있는데, 원 군과 달리 고려군의 얼굴을 마치 도깨비처럼 묘사하였다.²⁾ 이를 통해 당시 일본군이 고려군을 두려워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 이 또한 거꾸로 생각하면 아시아의 지배자 원과 “도깨비같이 두려운” 고려를 일본군이 모두 이겼다는 자부심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다케자키 스에나는 이 자랑스러운 전쟁에서 활약한 자신의 공로와 일본군의 용맹함을 몽고습래회사를 통해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다.

일본의 전쟁 승리에의 자부심에 대해 조금 덧붙이자면, 당시 아시아의 상당 지역을 정복했던 원나라 이긴 것은 당연히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그러나 일본은 고려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으로 봤을까? 고려군이 단순히 원의 정복지여서 어쩔 수 없이 끌려온 군사로 보지만은 않았을 거라는 것이 본인 견해이다. 몽골이 고려를 침략했을 때 몽골에 끝까지 항쟁하던 ‘삼별초’는 일본에 국서를 보내며 일본과의 외교를 시도했었다. 그러나 일본은 당시 고려의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는 무산되었다.³⁾ 이후 고려의 김방경 장수는 삼별초를 진압하고 몽골에 조력했으며, 1, 2차 일본 원정을 함께 주도하고 원정 당시 고려군을 이끌었다. 다시 말해, 일본 원정 당시 여원연합군의 고려군은 일본에 반감을 내비치는 반면 몽골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1) 참고: 위키백과. “몽고습래회사”. <https://ko.wikipedia.org/wiki/몽고습래회사> (2020.05.13.)

2) 참고: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몽고습래회사”.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ti/view.do?tabId=02&code=ti_ty_050_020&subjectId=0&levelId=ti_015_0130#self (2020.05.13.)

3) 참고: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삼별초가 일본에 보낸 국서”.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hm/view.do?period=%EA%B3%A0%EB%A0%A4%20%EC%8B%9C%EB%8C%80&theme=%EC%A0%95%EC%B9%98&tabId=01&levelId=hm_051_0070 (2020.05.13.)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고려와의 사소한 자존심 싸움에서도 승리한 것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동북아재단 김민규 박사의 설명에서 시기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용어

해당 영상의 설명에서 시기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용어가 무엇일지 하나하나 집중해서 듣고 조사해봤지만,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 아래 내용은 본인이 생각한, 유력하지만 답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세 가지 가설이다.

1. ‘왜’는 670년 국호가 일본으로 바뀌기 전까지 동아시아에서 고대 일본의 대외적인 명칭이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왜라는 명칭은 근세, 근대의 관점에서 일본을 낮잡아 칭하는 단어로 쓰였다. 즉,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일본’과 ‘왜’ 모두 당시 쓰이던 용어들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2. ‘해적’이라는 단어를 의심해 본 것은, 당시 서양에서 활개를 치던 해적들이 있었으리라 짐작해서였다. 만약 서양에서 활동하던 해적들이 있었고 왜구는 그 해적들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면, 시기적으로 ‘해적’이라는 단어가 왜구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가설이었다. 하지만 결국 ‘해상강도’라는 범주 내에서 그들은 다 같은 해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3. ‘대마도’라는 이름이 후대에 명명된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했지만, 이는 對馬島를 한글로 읽은 것으로, 일본어로 읽었을 때에는 쓰시마, 즉 아주 오래 전에 편찬되었던 일본서기에서도 사용한 단어가 된다. 따라서 이 또한 시기적으로 어울리는 용어라는 결론을 내렸다.

감상평

왜구는 고려 말, 조선 초기에 한반도에 거대한 위협이었다. 왜구는 바닷길을 통해 한반도로 건너와 우리나라 백성들을 약탈하고 도적질했으며, 잔인하게 죽이거나 노예로 팔아넘겼다. 이러한 왜구에 대해 조선은 강경책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회유책을 시행했다는 것, 왜구를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에서 끝났던 것이 아니라 조선에 투항한 왜구들에게 벼슬을 주어 조선을 위해 힘써 일하도록 했다는 것이 인상깊었다. 임시방편으로 왜구와의 전쟁을 벌이거나 일본에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왜구들 자체를 ‘약탈자’에서 ‘이웃’으로 만들고자 하였으며, 이는 왜구의 위협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에는 오히려 조선이 먼저 삼포를 개항했으며, 부산포와 염포, 제포는 국제무역항으로까지 발전했고 그 부근에서 조선인과 왜인 사이의 동업 및 협업이 이루어졌다.

국가 최대의 위기를 햇볕정책을 통해 극복한 사례를 보고 여러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가 당시 조선 백성이라면 이러한 정책을 과연 지지했을까? 당시 민심은 어땠을까? 국가가 자신들을 위해 왜구 근절에 힘쓴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조선이 일본 도적들과 손을 잡는다고 생각했을까? 결과적으로는 왜구 문제도 해결하고 일본과의 외교도 재개하고 조선의 삼포를 국제무역항으로 발전시키는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조

선 백성들은 많이 억울했을 것이다. 자신들을 약탈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본 도적들에게, 조선에서는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단 관리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역사에서는 언제나 사건의 시작과 결론 그리고 의의와 한계를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이러한 조선 조정의 정책이 옳은 결정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이렇게 미시적인 관점에서, 백성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도 해당 역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정성공 반청 운동의 배경과 결과

그의 아버지 정지룡부터 그의 아들 정경까지

정성공은 중국 명·청 교체기에 활동했던 명나라의 군인 겸 정치가이다.⁴⁾ 명나라의 황제를 도와 청나라에 대적하고 명 부흥을 주장했으며, 타이완을 근거지로 하여 반청 운동을 일으켰다. 그 배경을 정성공의 아버지, 정지룡에 관하여부터 반청 운동의 계기 및 결과까지 설명하고자 한다.

정지룡은 밀수입에 몸담아 큰 재력을 형성한 상인이자 무인, 즉 일종의 해적이었으며, 대만과 중국 해안을 연결하는 무역상으로 일했다. 당시 중국 해안에서 교역항을 찾던 네덜란드는 포르투갈이 주둔하고 있던 마카오를 침공했지만 실패하여 정지룡을 통해 명 조정에게 항구 하나를 내어달라고 요청했다. 명 조정과 네덜란드 사이에서 협상을 중재한 정지룡은, 결국 네덜란드에게 중국 해안은 불허하니 대만에 가서 요새를 짓고 무역항으로 활용하라고 권한다.⁵⁾ 이에 따라 네덜란드가 대만에 요새를 지은 것이 1624년이고, 이후 정성공이 점령해 반청 운동을 벌여 이곳에 한족 왕국을 세우고 수도로 삼은 것이 1660년대 초부터 약 20년 간이다.

그러나 1644년 이자성의 난으로 명나라가 멸망하고 1646년 정지룡은 자신의 영지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청나라에 투항했다. 이때 정성공은 아버지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나라를 지킬 것인지 중에, 아버지와는 반대로 충(忠)을 선택하였다. 정성공은 우선 아버지의 형제들, 즉 삼촌들의 지지를 얻어 내고 무역활동을 계속 유지하며 반청 운동을 위한 자금을 모았다.⁶⁾ 하지만 청의 조정에서는 이러한 정성공의 계략에 대한 대책으로 해금령을 실시하였다. 정성공의 해상 세력과 내륙의 비밀 조직과의 연락을 끊어 물자공급을 두절시킨 것이다. 그래서 정성공은 직접 대만으로 가기로 결심한다.

대만에 정착하기 위해 정성공은 그곳을 지배하고 있던 네덜란드를 공격하여 승리하였다. 당시 대만은 네덜란드에 약 40년 간 계속 저항해오던 참이라, 한족의 충신인 정성공을 반갑게 맞이하여 왕으로 추대하였다. 하지만 정성공은 1661년에 즉위 후 이듬해에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 정경이 20년간 대만을 통치하다 사망한 후, 청나라의 강희제가 1683년에 대만을 침공해 점령하며 반청 운동도 끝이 났다.

정성공은 아직까지도 여진족과 네덜란드에 대항하고 자신의 민족인 한족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킨 인물로 칭송되며, 대만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정성공은 대만을 수복한 민족영웅으로 받아들인다. 정성공의 대만 점령 덕분에 오늘날 중국과 대만이 같은 민족, 즉 형제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4) 참고: 위키백과. “정성공”. <https://ko.wikipedia.org/wiki/정성공> (2020.05.13.)

5) 참고: 김인영 기자. (2018.02.17.). “해적왕 정성공①…아버지 정지룡의 유산”. 오피니언뉴스. <https://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77> (2020.05.13.)

6) 참고: 김인영 기자. (2018.02.18.). “해적왕 정성공②…난징 공략 실패 후 대만 정벌”. 오피니언뉴스. <http://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85> (2020.05.13.)